

# 경사노위 저지 2차 토론회를 다녀와서

2019-01-19

모든 토론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가 있어야 한다 그것을 토론하지 않는 토론회는 잡담회이자 자족적 뽀띠부르주아 기회주의자들의 뒷풀이 안주거리일 뿐이다 오늘 토론회 역시 의도적 기회주의적 경향으로 마감되었다

우선 시회자는 지난 토론회를 상기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편집했고 발제자들, 관료적 지위를 한자리씩 차지하고 있고 경사노위의 다각화 우리가 보기엔 전면화를 주장하는 인자 금속노조 위원장까지 포함 되었다 토론회의 후퇴라고 아니 볼 수 없었다 1차 토론회 보다 더 전진하는 게 아니라 더 후퇴된 입장들이 개진되었다 그러고 보면 토론회에 걸린 대표 플랑문구는 2차 토론회의 입장과 문제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 문구가 아닐 수 없다

"사회적 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라니!

우리만 사회적 대화를 결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다시 어떻게 봐야지 싶다 경사노위, 노사정 야합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새삼 처음처럼 논해야 하는가? 98년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 2005년 역사적 야합 사실로 인해 개작살난 우리의 민주노조 운동의 현실을 정녕 활동가란 이들이 모른단 말인가?

아니다 그럴리 없다 다만 진실에 눈 감고 싶을 뿐이다 그점에서 김명환의 진단 경사노위 반대가 과잉되어 있다고 보는 건 지극히 정당한 관료적 견해일 뿐이다

김명환 일파는 이미 알고 있고 플랜 b를 고민하지 않아도 될만큼 자신만만 하다 왜냐면 좌파의 기회주의성 실제적 저지를 할 조직과 조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누구도 경사노위를 실제적으로 저지할 실제적 고민과 주장을 하지 않았다

좌파는 정말 위대한 그룹들이 아닌가?

토론을 조직하는 이들의 모임 그걸로 자족하는 노연 김하영처럼 실제적 구체적 고민을 제기하는 우리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기회주의성은 오늘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사활 동지는 지난 2005단상 점거투보다 지금의 사활적 저지가 더 어려운 '혁명적 실천'임을 강조했고 이는 극우 부르주아 언론과 뽀띠 부르주아 언론 거기에 더해 좌파라는 집단으로부터도 비난받을 수 있다고 그래도 그럼에도 전 계급적 사안이기에 하지 않을 수 없고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었다. 2005년이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권의 연속(김대중에서 노무현)이었다면 지금은 극우 닭그네에서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권으로 이어진 점 또한 첨언했다 그러자 도둑이 제발 저린 격으로 노연 동지 하나가 발끈하며 단상 점거투 아니면

기회주의냐며 댕거리하며 격하게 반응, 현장에서 조직하는 게 더 힘든 거고 효과적이라 투덜거렸다.

우리는 이미 지난 토론회 참가기를 통해 노연을 공개적으로 비판(태풍 속의 찻잔을 옹호하라 참조)했었다.

사회자는 길어질수 있다며 제지했고 우리 사활 성원은 단호히 대꾸했다.

“더 논의합시다.”

우리아말로 이 중차대한 계급적 사안에 대해 시간을 두지 말고 토론할 것을 호소한 장본인이기도 했다.

또한 지난 토론회에서 침을 튀기며 열변을 토한 변혁당 동지는 오늘 토론회에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일까? 지난 토론회에서의 변혁적인 입장을 내심 기대했는데 아쉬울 뿐이었다.

정파적 질서의 고착 아니 계급의 대의보다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를 우선시하는 종파적 질서는 오늘 토론회 자리에서도 여실없이 증명되었다. 김명환 일파의 그 핵심인 전국회의의 막강한 조직력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단호히 행동하지 않는 것 그거야말로 역사적 유죄가 아닐까?

뻘히 통과를 목표로 막무가내로 덤비는 불나방의 무리를 보고 익히 알면서도 구체적 세밀한 표 계산도 계급적 상징 저지투도 고민하지 않는 건 정말 과학인가?

과학적 사회주의인가?

과학적 기회주의인가?

모두들 싸그리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사업장 담벼락을 넘기 위해 골몰하는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의 발언처럼 사업장 담벼락을 관료적으로 건너 뛰지 않고 전투적으로 무너트리려는 투쟁을 꿈꾸는 우리는 현장의 정치가일 뿐인가? 현장의 레닌파야말로 최선의 투사들이 아닌가?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 단지 살인이 아니고 13명이 죽은 서부발전 동료들을 기억하며 연쇄살인으로 여긴다는 김용균 동지 어머니야말로 계급적 민주노조의 서기 인민의 호민관이자 우리들 모두의 어머니가 아닌가 싶다

오늘 토론회 자리가 심히 공허한 건 김용균 동지 어머니의 말이 들리지 않았고 전혀 토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학적으로!

경사노위 참여 속에 싹트는 어딘가 있을 또다른 김영균 동지의 죽음

죽어도 마주하지 말자.

기필코 저지하자.

투쟁!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2019. 1. 19

## 태풍 속의 찻잔을 엄호하라

2019-01-15

### 서론

레닌이 말했듯이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기회주의와 혁명주의 간의 대립은 필연이다. 경사노위 참여 저지(반대라는 표현으로 유순화된)라는 초보적인 계급적 입장에서 두 진영 사이의 분리는 나타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이렇게 제기된다: 경사노위 참여 반대를 넘어선(?) 투쟁 건설을 위한 과정이냐 아니면 경사노위 참여 저지라는 사활적인 계급의 임무를 관철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냐. 선전과 거수만으로 대대를 치를 것인가 아니면 선전과 거수 조직에도 불구하고 참여안을 밀어붙인다면 물리적 수단을 써서라도 저지시킬 것인가. 전자의 입장은 경사노위 참여 저지 투쟁에서 드러나는 기회주의적 입장으로, 13일 노동전선 토론회에서 발제자 3인 모두가 견지한 입장이다. 후자의 입장은 실천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계급적 노선이다. 대의원의 조직, 선전과 같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활동조차도 계급적 노선에서, 가장 철두철미한 참여안 저지의 입장에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그것만이 기회주의 진영이 끊임없이 되풀이 하며 주장하는 '참여 반대를 넘어선 투쟁 건설'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 투쟁은 다른 아닌 관료주의 정치를 뒤엎고 시작될 부르주아 국가의 사회적 '강요'에 맞선 계급적 투쟁이며 불철저한 선전주의 정신으로는 결코 시작될 수도 지지될 수도 없는 것이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 말해주지 않던가?

그리고 우리를 규탄하고 있지 않는가?

관료주의, 조합주의 정치가 발전 현장, 아니 모든 노동의 현장을 잔혹한 살인의 현장으로 방기하였다고.

관료주의 태풍이 계급의 찻잔을 깨트리려 한다고.

사회주의자들은 한번도 이 정치에 맞서 사활적으로 맞서지 못했다고.

이제라도 시작해야 한다. 진정한 계급의 정치, 김용균 동지 살해에 대한 복수의 정치를 말이다. 그리고 이 정치는 28일 대대에서의 투쟁에서도 관철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투쟁을 초좌익적이고 성급하다, 반대중적이다라고 비난하는 진정으로 정세 기관주의적이며 대중영합주의적인 진영은 김용균 동지 죽음으로부터 완벽히 드러난 관료화된 민주노총과 현장을 무의식적 혹은 의식적으로 엄호하는 것이다.

## 토론회의 시작: 발제자 3인의 발제

토론회 회의실은 참가자 수 때문에 발디딜 틈도 없이 가득차있었다. 참가 인원뿐만 아니라 그것의 엄숙한 분위기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반증하는 것이었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을 추모하는 묵념이 끝나자 발제가 시작되었다.

3명의 발제자 동지들은 공통적으로 대의원 조직, 현장 선전 강화등을 활동 방안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토론회 참여자 누구나 동의할 가장 기초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정신에 의해 대의원들이 조직되고 현장 선전을 수행하느냐는 것이었다.

대의원들이 충분히 조직되지 못해서, 또는 김명환 일파가 갖가지 음모로 참여안이 가결된다면 대대 의사일정 일체를 방해할 계획,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기초적인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아니면 마치 시사토론회하듯 느슨한 선전, 조직 활동을 수행할 것인가? 발제자 3인은 순전히 후자의 정신에서 기초적인 대응방안을 내놨다. 조합관료들과의 투쟁을 회피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였다.

김하영 동지는 무척이나 광범위한(잡다한) 내용과 의견들을 발제문에 담았다. 경제 위기, 여성문제, 이주노동자 및 난민문제, 심지어 선거 연대까지 말이다. 그런데 '좌파'가 개입해야 할 문제가 이토록 많은데 그 모든 문제에서 드러나는 기회주의 정치에는 침묵하는가? 김용균 동지 투쟁에서 나타나는 관료주의 정치는 말할 것도 없었다. 김하영 동지가 가장 적극적으로 기회주의 정치를 엄호한 것은 자유토론 시간이었다. 감사하게도 노동자 연대는 그의 발언을 자신의 기관지에 실어주었으니 뒤에가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이승철 동지는 현장에서 경사노위 참여안과 현장 사이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즉 상층의 논의일 뿐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그는 현장 문제와 경사노위 참여 문제 사이를 결합시켜 선전해야하고 대의원 대회 때 PPT 등 시각화된 자료가 동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층의 논의일 뿐이라는 견해를 일축하기 위해선 대의원들에게 반대의 이유를 중심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전을 구체적이고 현장적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에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단지 반대해야 할 이유가 원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의원들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인가? 이승철 동지가 말한대로 새로운 대의원들은 특정 정파에 가담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지도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히 대의원들이

순진해서가 아니라 관료주의적 질서가 작동한 결과다. 따라서 참여 저지(단순히 반대가 아닌) 선전은 김용균 동지 살해를 방관한 관료주의 늪에 대한 철저한 규탄이 되어야 하고 이만큼 현장적인(김용균 동지가 살해당한 현장을 보라!) 선전은 없을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지적없이 경사노위 참여하면 투쟁전선을 교란하여 근기법, 최임개약을 우리의 손으로 박차를 가해줄 따름이며 현장도 더 고통스러워질 뿐이라는 평이한 선전은 경사노위 참여 문제를 저지 투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론의 대상으로 보는 기회주의적 관점이다. 현장을 죽이는 김명환 집행부의 관료주의 정치를 구체적이고도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

이승철 동지가 "벽제파 프레임은 사멸했다"고 말했을 때 얼핏보면 누구나 동의할만한 현장선전론의 기회주의적 본질이 드러난다. 국민파 대 현장파라는 대립구도가 사멸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강조되어야 할 우리의 항상적 임무는 더 시각화되고 알기 쉬운 자료로 대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의 레닌주의파를 건설하고 기회주의 관료들과 철저한 대립하는 것이다. 이 임무에 대한 언급없이 '대립 구도는 더 이상 없다'고만 말한다면 앞으로 대립구도는 없을 것이고 만들려는 노력조차 필요없다는 기회주의적 결론, '벽제파'적 질서를 옹호하는 것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승철 동지 스스로가 98년 유림회관을 사수했던 기억, 2005년 대대 점거투 기억 등을 언급하면서도 말이다. 이승철 동지의 역사적 권위와 바로 지금 진실한 계급적 실천을 조직 행동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어제의 투사가 오늘의 기회주의자가 되는 건 지금 시기 산 역사가 아닌가? 배신자 문성현을 보라!

## 발제의 종료, 자유토론의 시작

자유토론 시간에는 각 산별과 현장의 조합원 동지들이 경사노위 참여 저지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것이 토론 발언의 주가 되었다. 이는 우리 운동의 희망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운동은 관료주의, 패배주의 정치에 대한 몇몇 현장에서의 산발적인 규탄을 넘어 조합관료들의 정치에 맞선 전계급적 투쟁으로 전진해야 했다. 이것의 첫걸음은 김명환 일파의 기회주의 정치에 대한 규탄과 28일 대대에서의 전투 준비였다. 토론회 발제자들은 이 점을 회피하고 기회주의를 옹호하였으므로 자유토론 시간에는 이를 지적해야만 했다.

한 사활 회원은 PPT 발표만으로 경사노위 참여안 부결시킬 수 있겠냐고 질문하였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는 충남 플랜트 건에서 김명환 주체주의 관료 일파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났으며 그들이 관찰시키려는 경사노위 참여안은 또다른 김용균을 양산할 것임을, '찾잔 속의 태풍'이란 말로 대대에서의 전투를 방기해서는 안됨을 호소했다. 이것들이 토론회 발제자들의 기회주의에 대한 최초의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한 발제자들의 답변은 우리의 목표는 "단지" 경사노위 참여 저지만이 아니라 계급적 입장을 선전하는 것이다라며 투쟁을 회피하는 좌익(?)적 문구, 예컨대 "아래로부터" 등등을 동원하는 것이었다.

발제자 답변이 끝나자 한 변혁당 당원은 토론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며 "토론회에서 두 가지 입장, 선전하고 공조를 강화하자는 입장과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데 어느 한 쪽도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그 동지는 토론과 선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총파업' 요구를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총파업'이 관료주의 정치에 의해 단순한 상근 간부와 몇몇 단위만을 동원한 한시간 짜리 집회로 전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동지의 주장은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 생각된다. 경사노위 참여 결사적 저지와 김용균 동지 살해에 맞서 태안화력을 멈추는 실질적 현장 투쟁, 거리와 시민에 매달리는 조합관료들에 대한 규탄이 가장 핵심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총파업 요구가 남발된다면 핵심을 흐릴 수 있다.

"이를 통해 2, 3월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으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의료민영화와 같은 개악을 막아내고, 6, 7월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원 쟁취 총파업 투쟁을 거쳐 중국에는 하반기 재벌체제 극복을 위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성사로 우리가 결의한 대의원대회 핵심 기조가 기필코 한국사회 전반을 뒤흔들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명환은 이미 말로는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에 계급적 또는 실질적이라는 수사를 붙인 총파업을 요구한다고 해서 김명환 집행부의 관료주의 정치를 더 전투적으로 규탄하고 실질적인 총파업을 쟁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와 같은 비판적 의견에 대한 김하영 동지의 답을 노동자 연대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일부 활동가들은 대의원들을 설득해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키자는 발제자의 주장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토론과 설득을 과제 회피인 듯 보는 일부 주장들에는 [노사정위 복귀가 쟁점이 된] 2005년 대의원대회 때처럼 물리력을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는 함축이 담겨 있었다. 아예 김명환 퇴진을 내걸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김하영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정리 발언에서 답했다.

“경사노위 불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문재인 의 노동개악을 좌절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경사노위 불참 선언을 투쟁 건설로 이어가려면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을 위한 물리력 동원은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다. 한 발언자 말대로 [활동가들에게] 패배주의가 있다면 물리력 동원 방식은 더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다. 1998년 정리해고 합의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부결시킨 것도 물리력이 아니었다. 현장 대의원들의 분노가 엄청나서 공개 거수 투표로 [민주노총] 지도부 불신임안이 통과된 것이다. 그 이후 들어선 지도부가 총파업을 제대로 조직하지 않은 것이 진짜 문제다. 지도부가 이런 일을 벌일 때 기층에서 좌파들이 투쟁을 조직해 낼 역량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김하영 동지, 대의원들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한다면 어떡할 것인가? 동지가 말한 효과적이지 못한 물리적 투쟁이 유일한 방책으로 되는 상황을 가정해야 하지 않겠는가? 투쟁은 언제나 최선의 조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최악의 조건에서는 회피되어야 하는가? 만약 그럴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기층"을 관료들의 손에 내놓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하영 동지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 투쟁을 단순한 입씨름의 문제로, 그저 '반대'하고 새로운(사실은 전혀 새롭지 않은 대중추수적인) 투쟁을 할 발판쯤으로 여기는 것이다. '아래로부터'라는 외침은 결국 관료주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투쟁하기 어려운 '기층' 정서에 영합하고 결과적으로 관료적 질서에 굴종해 기층의 투쟁을 파괴하는데 공조한다.

김하영 동지는 대대에서의 전투주장을 '자족적' 투쟁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그렇다! 우리는 경사노위를 저지하는 투쟁을 해낸다면 자기만족할 것이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계급적 자기만족인가? 아니면 자학적 자기 모멸에 빠질 것인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동지는 발제자들의 답변에 대해 발제자들의 뛰어난 학식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대대에서 전투의 중요성, 그리고 지난 노사정 야합의 결과물이 김용균 동지의 죽음임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투쟁을 회피하는 것이 좌파의 임무인가?" 마지막으로 인천공항 동지는 우리가 사회적 강요기구의 큰 강물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결국엔 각개의 현장의 냇가에서 또다른 김용균의 죽음을 마주할 것임을 호소했다.

발제자 3인의 정리발언 이후 사회자의 결의 발언과 함께 토론회는 끝났다.

## 마치며

13일 토론회는 경사노위 참여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이었다. 경사노위 참여는 관료주의 정치의 끝판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것은 상식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었다. 때문에 사회주의를 자처하는 조직 가운데서 불참한 조직들(노해투, 볼키, ICP 등)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 만약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활동(대의원 조직, 선전 등)만을 수행할 생각이라면 참여를 거부할 이유가 하등 없지 않은가? 또한 더 전투적인 활동을 수행해야 할 의무를 느낀다면 토론회 주체측에 그렇게 할 의지와 계획을 보이라고 요구하고 비판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행동 없이 또는 종파적인 이유로 불참한 것이라면 그 조직들 또한 기회주의 세력일 것이다.

동시에 이 토론회는 토론회 참가단 내 정치단체(노연, 변혁당)의 기회주의성 또한 여실히 드러냈다. 발제자들은 선전과 대의원 조직이라는 활동 과제만을 제시했으며 단상점거 등 물리적 활동 계획에 반대했다.

이제는 '찾잔 속의 태풍', '상층 논의'라는 각종 비난으로부터 우리 스스로가 벗어나야 한다. 찾잔 속의 태풍이던, 상층 논의던, 무슨 핑계를 대던 경사노위 참여는 계급에 대한 테러다. 김용균 동지의 죽음이 보여주지 않았는가? 노동계급을 죽음으로 내모는 테러의 정치는 중단되어야만 한다. 관료주의 태풍에 휩쓸려 파괴되기 일보 직전인 계급 운동의 찾잔을 엄호해야만 한다.

토론회장을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 채웠던 동지들! '상층 논의' '찾잔 속의 태풍' '자족적 투쟁'이라는 온갖 비난을 뚫고 계급에 대한 테러인 경사노위 참여안을 대대에서 기필코 저지합시다!

[사회주의 활동가 그룹]

2019.1.15